

SERI

Economic Outlook

2011. 4. 21.

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 목 차 -

Executive Summary

I. 최근 한국경제 흐름

II. 2011년 세계경제 전망

III. 2011년 한국경제 전망

IV. 정책적 시사점

작성 | 신창목 수석연구원(3780-8062) 外
changmock.shin@samsung.com

삼성경제연구소

【필자 소개(가나다순)】

곽수종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구본관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김경훈	글로벌연구실	선임연구원
김득갑	글로벌연구실	연구전문위원
김화년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박환일	공공정책실	수석연구원
손민중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신창목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엄정명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이은미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이종규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이찬영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이태환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전효찬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정대선	거시경제실	선임연구원
정무섭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
정영식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정진영	거시경제실	수석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ecutive Summary 》

2011년 한국경제는 4.3%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10년 30%에 육박하던 한국의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공급사슬체계의 불확실성 증대 등도 한국경제 성장에 걸림돌이다. 그러나 추가 양적완화(QE2)와 감세 등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회복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한국경제도 수출이 여전히 양호한 가운데 4%대의 안정적인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중 경기 흐름은 上低下高의 패턴이 예상된다. 1/4분기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2/4분기에는 최근 대두된 불확실성 증대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동사태가 진정되고 일본의 지진복구가 본격화되는 하반기에는 경기상승 모멘텀이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반기별 성장률(전년동기 대비)은 상반기의 3.7%에서 하반기에는 4.7%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소비자물가는 4.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외에도 임금과 공공요금 인상 등 비용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물가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세 억제를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금리도 회사채수익률 기준으로 5%대로 상승할 전망이다. 2011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060원으로 원화강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반적인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물가 상승세 억제를 위한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약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탈출한 반면,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거시경제 정책기조의 정상화 과정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계부채 부실화와 중소기업의 부담 증대 등을 고려하여 금리인상은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원화가치의 급등락 등 금융불안을 야기하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기존 조치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과도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향후 저환율 시대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원가절감과 더불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 비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중동사태와 동일본 대지진 등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응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구조 확립,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처 다변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2011년 분기별 주요 경제지표 전망 >

(전년동기 대비)

항목	단위	2010년	2011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	6.2	4.1 (1.5)	3.4 (0.7)	3.7 (1.1)	4.2 (1.4)	5.3 (1.6)	4.7 (1.5)	4.3
민간소비	%	4.1	3.6	3.7	3.6	3.5	4.2	3.9	3.7
고정투자		7.0	2.0	2.1	2.1	3.2	5.9	4.6	3.4
설비		25.0	13.0	6.1	9.3	4.2	10.2	7.2	8.2
건설		-1.4	-6.9	-0.7	-3.4	2.3	3.4	2.9	-0.1
총수출		14.5	15.9	9.9	12.7	8.4	9.7	9.1	10.8
총수입		16.9	13.8	11.3	12.5	9.9	11.8	10.9	11.7
소비자물가	%	2.9	4.5	4.5	4.5	3.9	3.4	3.7	4.1
실업률	%	3.7	4.2	3.5	3.8	3.5	3.4	3.4	3.6
경상수지	억 달러	282	30	62	92	33	50	84	176
무역수지	억 달러	412	80	87	167	54	83	137	304
수출	억 달러	4,664	1,313	1,398	2,711	1,297	1,459	2,756	5,467
(증가율)	(%)	(28.3)	(29.9)	(16.3)	(22.5)	(11.5)	(13.3)	(12.4)	(17.2)
수입	억 달러	4,252	1,233	1,311	2,544	1,243	1,376	2,619	5,163
(증가율)	(%)	(31.6)	(25.6)	(24.1)	(24.8)	(17.6)	(18.9)	(18.3)	(21.4)
원/달러 환율	원	1,156	1,120	1,070	1,095	1,035	1,015	1,025	1,060
회사채수익률	%	4.7	4.6	4.8	4.7	5.6	5.9	5.8	5.3
두바이유가	달러	78	101	113	107	105	103	104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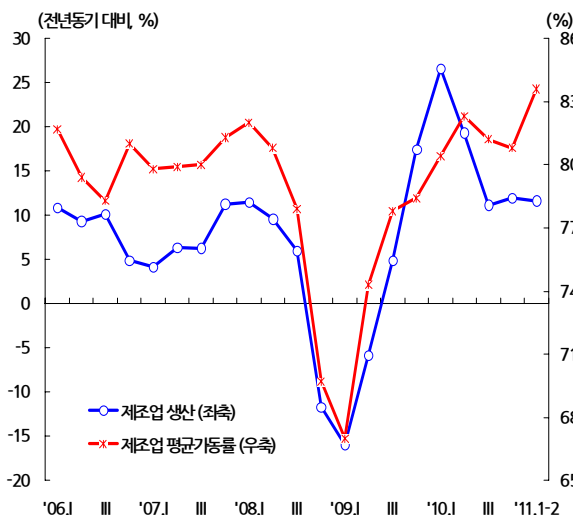
I. 최근 한국경제 흐름

실물경기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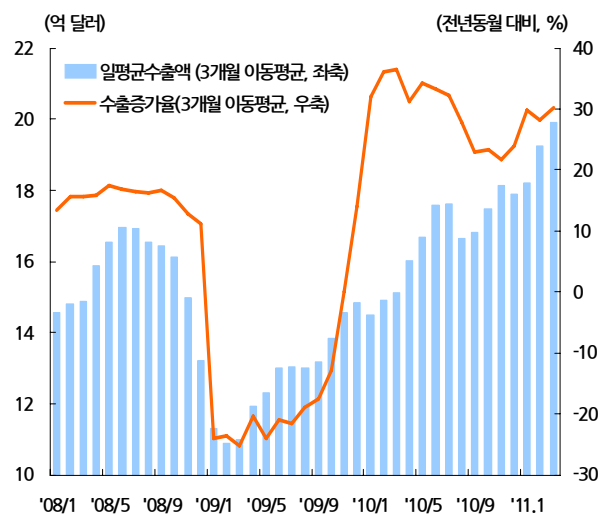
□ 2011년 들어서도 1/4분기까지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

- 2011년 1~2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1.7% 증가하며 두 자릿 수 증가세를 지속
 - 2011년 1~2월 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3.6%로 2010년 4/4분기(80.8%) 보다 2.8%p 상승
- 특히 수출은 중동사태, 동일본 대지진 등 대외악재 속에서도 큰 폭으로 확대되며 고공행진을 지속
 - 2011년 3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8.9% 증가한 480.7억 달러로 월 기준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
 - 일평균 수출액도 2011년 2월 20.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도 20.0억 달러의 높은 수준을 지속

제조업 생산과 평균가동률 추이



수출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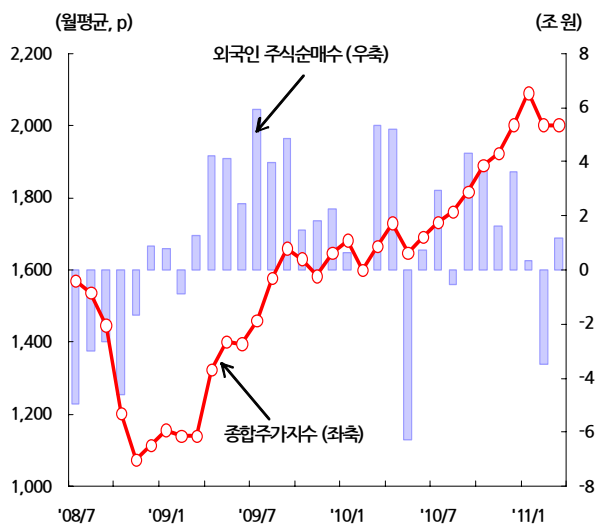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한국무역협회, 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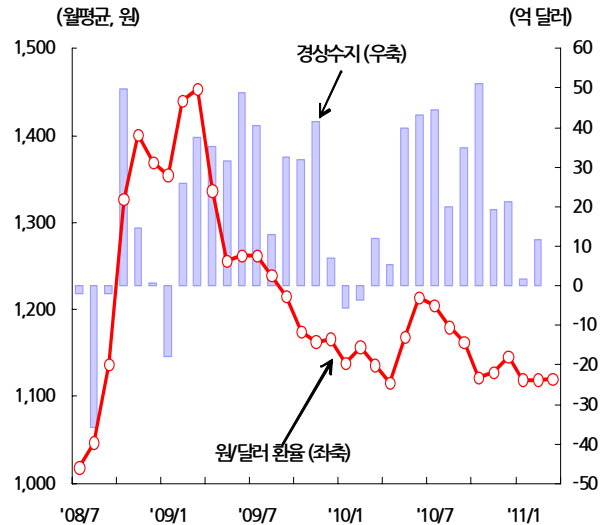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시현

- 국내 금융시장은 2~3월에 중동정세 불안,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으나, 3월 중순 이후 안정을 되찾는 모습
 - 주가는 대외악재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경기회복세 지속,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세로 반전
 - 2011년 2월 중동사태 악화로 외국인이 주식자금을 순매도하면서 일시적으로 2,000선을 하회하였으나, 3월 중순 이후 다시 꾸준한 상승세를 재개
 - KOSPI는 2011년 3월 중순에 1900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4월 20일에는 2,16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원/달러 환율도 중동사태와 동일본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1,100원대가 붕괴되는 등 원화의 강세 흐름이 지속
 - 4월 8일 원/달러 환율은 1,083원을 기록하며, 2008년 9월 8일(1,081원)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 대규모 무역흑자 지속, 외국인 자금 순유입,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강도 완화 등에 기인

주가지수와 외국인 주식순매수 추이



원/달러 환율과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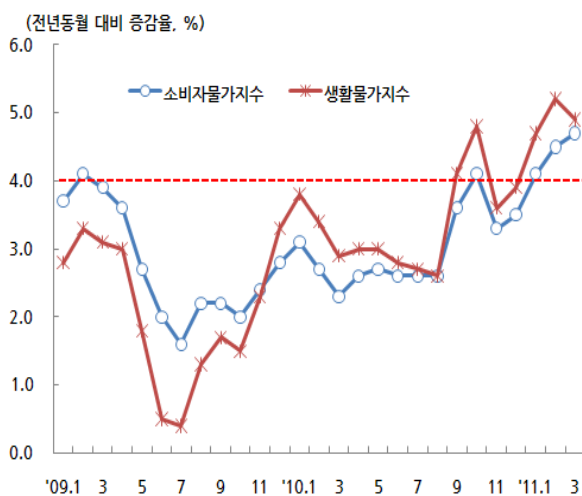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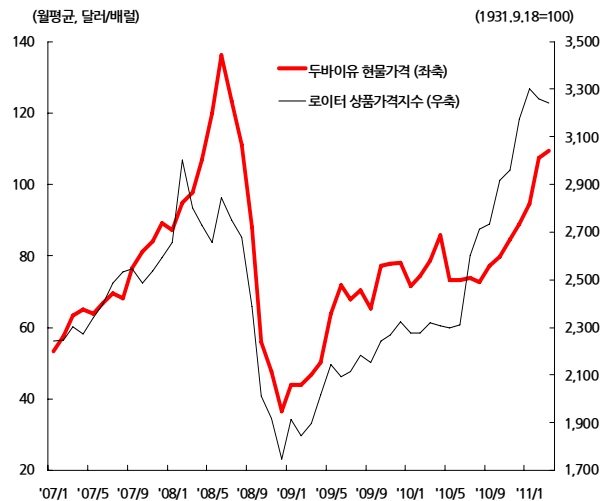
국내물가 불안 심화, 대외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은 여전

- 2011년 들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상회하는 등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택경기 부진과 부동산 PF대출 부실화 위험도 확산
 - 2011년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4.7% 상승하여 2011년 1월 (4.1% 상승) 이후 3개월 연속 4%대 상승
 - 물가상승세 확대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효과로 인해 2011년 3월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도 98로 1년 11개월 만에 기준치(100)를 하회
 - 2011년 3월 제조업 업황실적 BSI도 93으로 8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
 - 주택경기 부진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PF대출 부실화 우려가 확산
 - 2011년 2월 말 PF대출 연체율이 2010년 말의 4.3%에서 6.7%로 급등
-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글로벌 공급사슬 연쇄 충격 발생 우려도 상존
 - 2011년 3월 평균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1배럴당 108.5달러까지 상승
 - 동일본 대지진이 글로벌 공급사슬에 미칠 충격에 대한 우려도 고조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II. 2011년 세계경제 전망

성장률은 4%로 둔화되지만 하반기에는 완만하게 회복(上 3.9% → 下 4.1%)

- 2011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회복기조가 지속되고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고성장이 유지되며 4%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
 - 2010년 4/4분기 이후 미국의 新경기부양정책¹⁾이 의회를 통과하고 추가 양적완화정책(QE2)이 발표되어 미국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 2010년 4/4분기 미국경제가 3.1%(전기 대비 연율) 성장하고 실업률도 2011년 3월 8.8%까지 하락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 확산
 - 중국의 2011년 1/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와 유사한 9.7%를 기록하고, 인도는 수출이 크게 증가(2011년 2월 49.7%)하고 있어 신흥국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민간부문의 회복이 미약한 상황에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재정긴축이 시작되고, 신흥국에서 금융긴축 기조가 지속되면 2011년 세계경제의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
 - 아직까지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 같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2011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
 - 2010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11년에도 선진국의 1~4%대의 마이너스(-) GDP 갭률²⁾이 여전히 잔존
 - 금융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정부지출로 인해 재정위기가 발생하자 2011년부터 독일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재정긴축을 계획
 - 가격이 크게 상승한 에너지와 식품에 대한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큰 신흥국에서 물가불안이 커지면서 금리인상 등 긴축기조가 강화

1) 8,010억 달러 규모의 감세와 실업보험 연장을 위한 570억 달러 등을 포함

2) GDP갭률 = (실질GDP-잠재GDP) ÷ 잠재GDP × 100

- 2011년 하반기로 갈수록 원자재 가격도 다소 안정되고 주요국의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약한 ‘上低下高’의 흐름이 될 전망
 -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불안이 완화되고 민간부문의 소비가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완만히 상승할 전망(上 3.9% → 下 4.1%)
 - 그러나 중국에서는 금융긴축의 효과가, 유럽에서는 재정긴축의 효과가 하반기에 집중되며 ‘上高下低’의 경기 흐름을 보일 전망

중동사태, 동일본 대지진, 유럽 재정위기 재발 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

- 중동사태는 국제유가 상승, 물가불안 가중, 소비·투자 위축, 안전자산 선호도로 인한 신흥국 자금 유출의 가속화를 유발하여 세계경제에 악영향
 -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주요국의 경기부양책과 저금리 기조로 물가가 불안한 가운데 중동사태로 인한 추가적인 유가 상승은 세계경제에 악영향
 - 특히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면서 신흥국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유출되고 환율이 불안해지는 등 신흥국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판단
- 동일본 대지진으로 엔화가 초강세³⁾를 보인 후 약세로 전환되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과 함께 중간소재의 공급불안을 초래
 - 소재 및 제조 강국인 일본의 조업 차질로 인해 제조업 기반 국가를 중심으로 산업생산의 불확실성을 높여 세계경제에 악영향
- 유럽의 재정위기는 포르투갈의 구제금융이 확정되고 스페인 위기론이 부상하면서 2011년에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3) 동일본 대지진 발생 후 일본 해외투자자금의 본국 회귀가 발생하며 엔화는 초강세를 나타냄
(3월 17일 현재 76.25엔/달러)

- 2011년 4월 포르투갈의 구제금융 신청은 오히려 불확실을 완화시킴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으나 향후 구제금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상존
- 스페인의 문제는 저축은행 부실에 그칠 것이라는 긍정론과 결국 스페인도 재정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부정론이 양립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선진국: 미국이 하반기 회복을 견인(上 2.1% → 下 2.3%)

- 2011년 선진국 경제는 유로지역과 일본경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2.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유로지역에서는 재정긴축과 물가불안에 따른 금융긴축이 동시에 시행되고, 일본에서는 소비부양책 종료와 동일본 대지진 피해로 인해 성장률의 둔화가 불가피
 - 미국경제는 소비 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고용시장의 불안이 다소 안정되며 회복기조로 전환되어 선진국 경제의 회복을 이끌 전망
- 2011년 미국경제는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며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QE2가 종료된 후 긴축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
 - 미국경제는 2010년 4/4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회복기조가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지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
 - 그러나 QE2가 종료되고 2011년 하반기의 물가불안 정도에 따라 금리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점은 하반기 경기둔화 요인으로 작용
- 2011년 유로지역 경제는 재정긴축과 물가불안에 따른 금리인상 등으로 성장률이 1%대 중반(1.4%)에 그칠 전망

-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정부부문이 독일, 프랑스 등 중심 회원국의 재정긴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임
 - 물가불안에 따른 ECB의 금리인상은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던 민간소비를 다시 위축시킬 가능성
 -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가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로 2011년 일본경제의 성장률은 지진피해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0.4~0.6%p 하락한 0.8% 수준으로 예상
- 생산시설 파괴, 원전사고로 인한 계획 정전 등에 따른 생산 차질로 야기되는 2011년 일본의 GDP 성장률 하락효과는 1.3~1.5%p로 추정
 - 반면, 2011년 하반기 이후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GDP 증가율을 높이는 효과⁴⁾도 있어 전체적으로 2011년 일본의 GDP 성장률은 지진 피해 이전 상황에 비해 0.4~0.6%p 감소할 전망
 - 지진 피해가 없었더라도 2011년 GDP 성장률은 2010년(3.9%) 대비 큰 폭의 하락이 불가피하였던 상황
 - 2011년에는 정부의 수요촉진정책 종료⁵⁾에 따른 반작용으로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개인소비의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⁶⁾

신흥국: 인도, 브라질이 하반기 회복을 견인(上 5.8% → 下 6.0%)

- 2011년 신흥국 경제는 물가불안이 커지면서 긴축기조가 강화되어 2010년 (7.1%)에 비해 성장률이 둔화되나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될 전망
- 중국, 인도, 브라질은 물가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긴축기조를 강화하여 성장세가 둔화되지만, 러시아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4) 일본 내각부는 피해복구 투자에 따른 2011년 GDP 증가효과를 0.7~1.1%p로 추정
 5) 신차구입 보조금제도가 2010년 9월 종료되고, 가전 에코포인트제도는 2010년 12월 대상품목 축소에 이어 2011년 3월에 완전 종료
 6) 2010년 24%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던 수출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BRICs 국가 중 중국만 하반기까지 긴축기조가 강화되며 ‘上高下低’의 경기 흐름을 보일 전망
 - 물가상승률이 2010년 하반기에 고점을 형성한 후 안정을 찾고 있는 인도와 달리, 중국은 2011년에도 물가상승률 확대가 지속되며 긴축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

- 2011년 중국경제는 성장정책 전환⁷⁾과 물가불안으로 인한 긴축기조 강화로 성장률이 2010년 대비 1.3%p 둔화된 9.0%를 기록할 전망
 -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긴축 등으로 내수가 둔화되고, 선진국 경제의 불투명성과 기저효과의 소멸로 수출 증가세도 낮아질 전망

- 2011년 인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위축되어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0.6%p 둔화된 8.0%로 전망됨
 -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로 인해 2011년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금리인상 등 긴축기조는 지속될 전망
 - 2011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산업노동자 기준)은 9.3%로 2010년 12월에 비해 0.4%p 낮아졌고 2월에도 8.8%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약해지고 수출 증가세와 내수 시장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8%대의 성장률은 유지할 전망

- 2011년 브라질 경제도 경기과열을 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으로 인해 성장률이 전년 대비 2.9%p 하락한 4.6%로 전망
 - 2011년 상반기에는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기준금리 인상과 헤알화 초강세로 인해 산업생산의 성장 둔화가 예상
 - 2010년 4월 이후 기준금리가 총 3.0%p 인상되었으나, 2011년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6.3%)은 중앙은행의 물가목표 상한(6.5%)에 근접

7) 2011년 전인대에서 중국은 경제의 외형성장 대신 질적 발전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하였으며, 12-5 계획기간의 목표성장률을 종전의 7.5%에서 7%로 하향

- 2011년 하반기에는 국제행사⁸⁾를 위한 인프라 건설과 정부의 에너지 산업 투자가 본격화되며 경제성장률이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러시아 경제는 미국의 경기회복과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전망
 - 1배럴당 연평균 100달러를 상회하는 고유가가 전망⁹⁾됨에 따라 2011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0.1%p 상승한 4.1%로 전망
 -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순수입 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다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민간외채 부담, 2012년 선거를 둘러싼 정정불안 가능성, 인종 간 분쟁 등은 리스크 요인

2011년 세계경제 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세계경제 (시장환율 기준)	-0.7 -1.8	5.0 4.1	4.8 4.0	4.9 4.1	3.9 3.3	4.1 3.7	4.0 3.5
선진국	-3.4	2.7	3.1	2.9	2.1	2.3	2.2
미국	-2.6	2.7	3.1	2.9	2.7	3.3	3.0
유로지역 (독일)	-4.1 -4.7	1.4 3.0	2.0 4.0	1.7 3.5	1.6 2.8	1.2 2.0	1.4 2.4
영국	-4.9	0.7	2.0	1.3	1.5	1.2	1.3
일본	-6.3	4.4	3.6	3.9	0.5	1.0	0.8
신흥국 (BRICs)	2.3 5.0	7.5 9.5	6.7 8.3	7.1 8.9	5.8 7.6	6.0 7.8	5.9 7.7
중국	9.2	11.1	9.7	10.3	9.3	8.7	9.0
인도	6.7	8.7	8.5	8.6	7.8	8.2	8.0
브라질	-0.6	8.9	6.0	7.5	3.5	5.7	4.6
러시아	-7.9	4.0	4.1	4.0	2.9	5.2	4.1
ASEAN 5	1.6	7.8	5.9	6.8	4.7	5.8	5.3

주: ASEAN 5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5개국

8)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

9) 당초 러시아 재무부(2010년 9월 발표)는 2011년 연평균 유가 75달러를 전제로 3%대의 경제성장을 예상

2011년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1배럴당 105달러로 상승

-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사태가 이집트, 리비아 등 주변 산유국으로 확산되며 석유 공급불안이 확대
 - OPEC 회원국이자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2%¹⁰⁾를 차지하는 리비아에 정권 퇴진시위가 발생하고, 내전 양상으로 확산되어 석유 공급불안이 가중
 - 공급이 불안한 가운데 신흥국의 석유수요 증가세는 지속되어 2011년 석유는 70만 배럴/일 이상의 초과수요가 발생할 전망

- 2011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34.6% 상승한 1배럴당 105달러로 예상
 - 결국 중동사태의 향방에 따라서 2011년 국제유가가 결정될 것이며, 2011년 하반기에는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석유 거래시장에서 공급불안 악재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유생산능력(320만 배럴/일¹¹⁾)은 OPEC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지속 여부가 유가 안정의 주요 변수
 - 따라서 상반기 평균 가격이 1배럴당 107달러, 하반기 평균 가격은 상반기보다 소폭 낮은 104달러로 완만한 ‘上高下低’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3/4분기에는 계절적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사태로 인한 상승분에 대한 조정과 QE2가 끝나면서 달러 유동성 증가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져 가격 조정이 시작될 전망

국제유가(두바이유) 전망

(단위: 달러/배럴)

2010년	2011년						
	1/4	2/4	상반기	3/4	4/4	하반기	연간
78	101	113	107	105	103	104	105

10) BP (2010).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의 2009년 생산량 기준

11) IEA (2011.4.). Oil Market Report.

Ⅲ. 2011년 한국경제 전망

1. 경제성장

2011년 연간 성장률은 4.3% 예상

□ 2011년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경제 성장률 역시 2010년의 6.2%에 비해 1.9%p 하락한 4.3%를 기록할 전망

-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세 동반 둔화로 2010년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상당 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중동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공급사슬체계의 불확실성 증대 등도 한국경제 성장에 걸림돌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융긴축은 세계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
 - 일본의 생산 재개가 예상보다 지연되면 세계경제의 공급사슬체계에 차질을 빚어 세계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 대내적으로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세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및 원화가치 절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

□ 그러나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회복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한국경제도 4%대의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

- 2010년 말 미국의 QE2와 감세 연장 등의 정책효과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세계경기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기가 개선
 - 2010년 4/4분기 미국경제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이 3.1%를 기록
 - 2011년 4월 미국 FRB의 베이지북에서도 노동시장 개선과 제조업 호조 등으로 미국경제가 완만하게 확장 중이라고 평가
- 당초 우려와는 달리 금융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

- 2010년 4/4분기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전년동기 대비)은 각각 9.8%와 8.2%
- 2011년 1/4분기 중국은 당초 예상을 웃도는 9.7%의 성장률을 기록
- 이에 따라 2011년 한국경제는 수출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4.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세계 실물경제의 전반적 회복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여전히 10%대 후반의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

上低下高의 경기 흐름: 3.7%(상반기) → 4.7%(하반기)

- 2011년 1/4분기까지는 2010년 하반기에 시작된 강한 성장 모멘텀이 지속 되겠지만 2/4분기에는 중동사태와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
- 2/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이 1/4분기의 4.1%에서 3.4%로 하락하는 등 성장률 측면에서 경기저점을 형성할 전망
- 전기 대비 성장률: 1.5%(1/4분기) → 0.7%(2/4분기)
-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6.6%p로 내수의 성장기여도 2.3%p를 크게 상회하면서 성장을 주도할 전망
- 중동사태의 진정과 일본의 복구작업 본격화 등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는 하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이 4.7%로 상승할 전망
-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3/4분기 4.2%에서 4/4분기에는 5.3%까지 상승
- 전기 대비 성장률: 1.4%(3/4분기) → 1.6%(4/4분기)
-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경제심리가 회복되는 하반기에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3.3%p로 상승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4.8%p)와의 격차가 축소될 전망

2. 민간소비

2011년 민간소비 3.7%: 3.6%(상반기) → 3.9%(하반기)

□ 2011년 민간소비는 물가불안,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에 그칠 전망

- 물가 오름세 확대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약화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
 - 2010년 4/4분기 가계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1.3%에 그치면서, 2010년 1/4분기(7.1%)를 정점으로 증가세가 둔화 추세
-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이 확대되고 처분가능소득이 축소되면서 소비가 위축
 - 물가상승압력 확대, 금리정상화 등으로 이미 시중금리는 상승국면으로 전환한 상태
 - 2010년 개인부문의 실제 이자지급액¹²⁾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로 전년대비 4,106억 원 늘어난 44.9조원을 기록
- 부동산시장 회복지연이 자산효과가 소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제한

□ 반기별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각각 3.6%, 3.9% 증가하며 上低下高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상반기에는 기상이변, 중동사태 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전망
- 하반기에는 공급충격요인 완화에 따른 물가 상승세 둔화, 경기회복과 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활동이 상반기에 비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12)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의 개인부문(사용) 기준

3. 고정투자

2011년 설비투자 8.2%: 9.3%(상반기) → 7.2%(하반기)¹³⁾

□ 2010년에 설비 확충이 크게 이루어진 데다 동일본 대지진과 MENA 사태 등의 여파로 2011년 상반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0.7% 증가에 그칠 전망

- 2010년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25.0% 증가하는 등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2010년 상반기 15.7%p에서 하반기 3.9%p로 하락
- 2011년 상반기에는 MENA 사태와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설비투자의 재개가 지연

□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기업이 투자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함에 따라 설비투자가 전기 대비 4.3% 증가할 전망

- 주요 대기업은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2011년 투자를 2010년보다 확대할 계획
 - 투자에 관한 기업 조사(상장기업 504개 대상) 결과, 2011년에 투자규모를 2010년보다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더 많았고 하반기 투자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¹⁴⁾
- 제조업뿐만 아니라 내수 관련 비제조업 설비투자도 점차 증가할 전망
 -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010년 10월 이후 80% 이상의 완전가동률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설비투자의 재개 가능성을 뒷받침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2010년 4/4분기부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비제조업 부문의 증가세가 뚜렷¹⁵⁾

13)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로는 上高下低의 패턴을 보이겠지만, 설비투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기 대비 증가율은 상반기 0.7%에서 하반기 4.3%로 상승

14) 2011년도 투자규모를 2010년보다 확대하겠다는 기업(45.8%)이 축소하겠다는 기업(10.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기업의 69.3%가 상반기 투자 비중을 50% 이하라고 응답 (이찬영 (2011). “투자과 고용에 관한 기업조사.” 삼성경제연구소.)

15) 2011년 1~2월 비제조업 국내기계수주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32.1%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2011년 건설투자 -0.1%: -3.4%(상반기) → 2.9%(하반기)

- 2011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주택시장의 회복세 미흡과 토목공사의 실적 저하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감소할 전망
 - 주택가격의 불확실성 증가로 매매거래가 위축되고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 담보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채무부담이 가중되면서 신규 주택수요가 억제
 - 그동안 건축건설투자의 부진을 보완하였던 토목건설투자도 크게 약화
 - 전년동기 대비 토목건설투자 증가율이 2010년 1분기 이후 1%대로 하락하였고, 2011년 1분기에는 이상한파로 인한 공사차질로 -11.5%를 기록¹⁶⁾
- 2011년 하반기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의 주도로 건설투자가 재개되고, 민간 부문의 주택건설 투자가 회복을 보이면서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할 전망
 - 4대강사업이 2011년 조기완공을 목표로 기성진척이 진행되고 하반기부터는 혁신도시 이전 공사 등 비주거용 건설투자도 점차 증가
 - 전세난 해소와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공급 필요성이 확대되고 재건축 사업이 늘어나면서 민간 주택투자가 소폭 재개
- 2011년 전체적으로는 재정여력 축소와 부동산 경기의 회복 지연, 건설업체의 자금난 등으로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전망
 - SOC 예산액 축소로 정부의 투자여력이 약화되었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담 증가로 지자체와 공기업의 투자확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2010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하락
 -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난 심화도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16) 토목건설투자 추이(전년동기 대비, %): 6.0(2010. 1/4) → 0.6(2/4) → 1.9(3/4) → 1.2(4/4) → -11.5(2011. 1/4)

4. 대외거래

2011년 수출 17.2%: 22.5%(상반기) → 12.4%(하반기)

□ 2011년 수출 증가율은 전년(28.3%)보다 낮아진 17.2%를 기록할 전망

- MENA 사태, 동일본 대지진,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의 악재로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년보다 0.9%p 하락하면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하락이 불가피
- 그러나 세계 실물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수출 증가율도 여전히 10%대 후반의 호조세 유지

□ 수출단가의 흐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등에 따라 수출 증가율은 上高下低

- 상반기 수출단가 상승과 일본상품 대체수요 등에 따라 수출호조가 예상
 - 고유가로 인해 교역조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겠으나, 對산유국 수출 증대와 석유제품의 수출단가 상승 등은 수출 증가요인으로 작용
 - 대지진 이후 일본의 소비재와 재해복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시장에서 자동차와 철강 등의 산업분야에서 일본상품 대체수요가 증가
- 하반기에 일본산 중간재와 자본재 조달 애로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은 상반기보다 하락하겠으나 두 자릿수의 증가율 유지
 - 일본의 전력복구가 지연되면 3/4분기 이후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수출품의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되나 소폭의 조정에 그칠 전망
 - 하반기 유가 안정 등 불안요인 축소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소폭 확대되면서 4/4분기에는 수출물량 증가세가 3/4분기에 비해 개선

□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으로 2011년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282억 달러)보다 줄어든 176억 달러로 전망

-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 수입이 21.4%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2010년 412억 달러에서 2011년 304억 달러로 축소
- 원/달러 환율이 4/4분기 1,015원 선까지 하락하는 등 원화강세 기조가 유지되어 2011년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0년의 112억 달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

5. 물가

2011년 소비자물가 4.1%: 4.5%(상반기) → 3.7%(하반기)

- 2011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해외발 공급충격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되어 전년동기 대비 4.5% 상승할 전망
 - 국제 곡물시장과 원자재시장에서의 수급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에 따른 원유가격 급등으로 수입물가 상승세 지속
 - 국제곡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차이나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공급차질로 물가불안이 가중
 - 근원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점차 가시화
 - 근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 대비): 2.6% (2011년 1월) → 3.1% (2월) → 3.3% (3월)
- 하반기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 상승과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상승률은 상반기보다 낮은 3.7%를 기록할 전망
 - 원화가치 절상 및 원자재가격 상승세 진정 등으로 수입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금리인상이 가세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약화될 전망
 -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물가하락 압력이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전망¹⁷⁾
 -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불안 심리는 점차 완화될 전망
 - 그러나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임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요인도 상존해 물가불안 상황은 여전
 - 임금인상과 전기료를 포함한 공공요금 현실화 등 서비스 가격 상승요인에 따라 근원물가의 상승세도 지속될 전망

17) 삼성경제연구소의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는 0.7%p 상승하고, 국제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는 각각 0.3%p, 0.1%p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6. 고용

2011년 실업률 3.6%: 3.8%(상반기) → 3.4%(하반기)

- 2011년은 성장 둔화와 공공 일자리 사업 축소 등으로 일자리 창출 폭이 2010년(32.3만 개)보다 축소된 25만 개 내외로 예상
 - 2011년 민간 서비스 일자리는 내수부문 성장세 둔화와 자영업 구조조정 지속 등으로 크게 확대되기 어렵고 정부의 일자리 사업도 축소될 전망
 - 2011년 지역일자리 사업에는 2009~2010년에 시행되었던 희망근로사업이 제외되었으며, 예산(5,708억 원)도 전년(1조 4,839억 원) 대비 38% 수준
 - 수출 및 투자의 성장세 둔화로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도 약화될 전망이며, 건설경기 부진의 지속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 2011년 수출(통관 기준)과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17.2%와 8.2%로 각각 2010년의 28.3%와 25.0%를 크게 하회할 전망
 - 2011년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0.1% 감소할 전망으로 건설관련 고용¹⁸⁾ 부진이 예상
- 2011년 실업률은 2010년보다 0.1%p 하락한 3.6%로 예상되며, 하반기 실업률은 3.4%로 상반기의 3.8%보다 하락할 전망
 - 2011년 공공 일자리 사업 축소는 일자리 창출력 약화요인이지만 동시에 실업률 하락요인으로도 작용
 - 2010년 실업률 상승 이유 중 하나가 일자리 사업의 수혜를 기대한 고령층의 적극적인 구직행태로 고령층 실업자가 급증했기 때문¹⁹⁾
 - 하반기에는 내수부문의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확대되어 서비스업 노동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업률 하락을 주도

18) 2008년 기준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취업자수/산출액 10억 원)는 17.1로 제조업의 9.2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

19) 2010년 실업률이 2009년 대비 0.1%p 상승한 3.7%를 기록한 것은 주로 60세 이상 실업률이 2009년의 1.6%에서 2010년 2.8%로 크게 상승한 데 기인

7. 금리

2011년 5.3%: 4.7%(상반기) → 5.8%(하반기)

- 2011년 시장금리(3년 만기 AA- 회사채수익률 기준)는 금리인상과 자금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2010년(평균 4.7%)보다 높은 연평균 5.3%로 예상
 - 물가상승 억제와 금리 정상화 차원에서 향후 기준금리가 3~4차례에 걸쳐 0.75~1.0%p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

- 하반기에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효과가 상반기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외국인투자자의 채권 매수세가 둔화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
 - 미국이 QE2를 6월 말에 종료하는 데다, 외국인 채권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등 정부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 안정화 조치에 따라 외국인 채권 매수규모가 축소될 전망
 - 특히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난 심화 등의 영향으로 비우량기업에 적용되는 리스크 프리미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기업 투자 확대, 소비 증가 등으로 경제주체의 자금수요가 늘어나면서 4/4분기에는 시장금리가 5% 후반까지 상승할 전망
 - 대외적인 경기 불안요인이 하반기 들어 약화될 것으로 보여 4/4분기에는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할 전망
 - 민간소비도 고용 개선, 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상반기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가계 자금수요가 증가할 전망

8. 원/달러 환율

2011년 연평균 환율 1,060원: 1,095원(상반기) → 1,025원(하반기)

□ 달러화가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강세가 예상

- 엔캐리 트레이드 재개,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 국제통화질서 개편 논의 본격화, 등으로 달러화는 약세를 보일 전망
 - 일본의 막대한 엔화 유동성 공급 및 초저금리 유지, 엔화 초강세를 막기 위한 G7의 외환시장 공동개입, ECB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
 - 4월 18일 국제신용평가사인 S&P는 미국의 고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문제로 인해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 위안화의 SDR 편입, 과도한 자본유출입 억제 장치 마련 등으로 달러화의 제1기축통화 위상이 다소 약화될 전망
- 국내적으로도 경상수지 흑자, 기준금리 인상,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약화 등으로 원화 강세 요인이 우세
 - 정부가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혀, 앞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고 원화강세를 용인할 것으로 예상

□ 연중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2/4~3/4분기에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4/4분기에는 하락 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연말로 갈수록 美 금리인상 기대감이 고조됨에 따라 달러화가 일시 강세
 -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이탈해 원화 강세가 제한
 - 다만,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미국의 금리인상이 신흥국, ECB보다 늦었기 때문에 달러화 강세 정도는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국내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2/4~3/4분기에 외환 당국의 원화강세 용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IV. 정책적 시사점

경제정책 기조의 정상화 과정을 지속하되 점진적으로 시행

-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탈출한 반면,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 기조의 정상화 과정이 지속될 필요
 - 2011년 들어 3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대 상단인 4%를 초과하는 등 물가불안이 가중
 - 특히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5%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 중²⁰⁾
 - 최근 공기업 부채²¹⁾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각에서 향후 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
 - 2010년 한국의 국가채무(392.8조 원)는 GDP 대비 33.5%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재정상태를 유지
 - 그러나 2010년 말 27개 공기업의 부채가 약 27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기업 부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한국경제가 2010년 6.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11년에도 양호한 4.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은 위기 이전의 성장 궤도로 재진입하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긴축기조로의 전환 과정은 점진적으로 추진
 -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조기회복하여 2010년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으나, 2011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09~2011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3.5%가 될 것으로 전망
 - OECD는 2000~2007년에는 4.6%이던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위기로 인해 2010~2015년에는 3.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²²⁾

20) 생활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 4.7%(2011년 1월) → 5.2%(2월) → 4.9%(3월)

21) 공기업 부채는 『IMF 정부재정통계편람』에서는 정부부채에서 제외하고 있는 항목이나, 공기업 부실화로 채무이행 불능사태가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 공기업 부채는 잠재적인 정부 채무

22) OECD (2010). OECD Economic Outlook.

①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완화

- 긴축으로의 기조 전환은 유지하되 기준금리 인상의 폭과 시기를 조절하는 등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
 -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상승은 소비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
 - 가계부채 문제와 제2 금융권의 PF 부실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금리인상은 이들에게 상당한 부담
 - 최하위소득계층(1분위)에서 부채보유 가구의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20.4%에 달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상당

② 경기친화적인 재정건전화를 시도

-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되 급격하고도 무리한 재정긴축은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계속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일조했던 정부정책 효과가 빠르게 축소 중
 - 정부부문²³⁾의 성장률: 10.0%(2009년) → -0.5%(2010년)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폭: 19.2만 개(2009년) → -7.2만 개(2010년)
 - 재정 총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되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에 집중
 - 무리한 긴축재정으로 SOC 투자 등에 소홀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 재정수입 축소를 초래
 - 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가 계층 간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와 교육 대책을 마련

23) 정부부문은 정부소비와 정부주체의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원/달러 환율의 급락 가능성에 대비

- 정책 당국은 환율 급등락과 금융시장 불안에 초래하는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대해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은 주로 외국인 자금의 과도한 유출입과 밀접히 관련
 - 최근 원/달러 환율 급락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발생
 - 과도한 자본유출입 변동은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
 -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를 위한 기존 조치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과도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
 -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소득 과세 환원, 외환건전성 부담금(일명 은행세) 등 기존 조치를 강화하거나 예정대로 시행
 - 기존 제도가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외국인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조건부 금융거래세’²⁴⁾의 도입을 검토
- 기업은 향후 저환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에 미리 대비할 필요
- 향후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엔 환율도 크게 하락할 전망이어서 수출기업의 고회율 효과는 점차 소멸
 - 기업들은 환위험 관리 강화, 원가절감, 생산기지 다변화 등과 함께 고기술,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근본경쟁력을 제고
 - 2005~2007년의 저환율 시기에 한국 수출기업의 다각적인 대응과 체질 개선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일조한 사례를 참조
 - 같은 시기 일본기업은 엔저(低)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실경영에 대한 긴장을 풀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진행된 엔고(高)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

24)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사전에 정한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순유입될 경우 사전에 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정영식, 정대선 (2011). “국내외 자본유출입 규제의 대안 모색: 조건부 금융거래세를 중심으로.” 『201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pp. 1-35), 2월 11일. 서울: 중앙대학교.)

예상치 못했던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

① 부품·소재 자립도 제고로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

-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산 부품·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해 부품조달의 안정성을 개선
 - 동일본 대지진이 한국기업의 생산활동에 가시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고 있으나 현재 부품·소재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 취약성이 상존
 - 2010년 한국이 수입한 부품·소재 총액 1,512억 달러 중에서 대일 수입액이 25.2%인 381억 달러를 차지
 - 직접개발이나 FDI, 합작투자 등을 통해 핵심 부품을 국산화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부품·소재 공급처를 일본 외 지역으로 다변화
 - 일본기업의 국내 유치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국내 FDI 유도를 통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

② 에너지 효율적인 경제체질을 구축하여 유가 변동성을 극복

- MENA 사태의 장기화, 고유가 지속 등에 대응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노력 강화
 -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 등 화석연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
 - 유가 급등기였던 2008년 상반기에 한국의 원유소비부담²⁵⁾은 7.8%였으며 2011년 원유소비부담도 7.0%에 달할 전망
 - 원자력발전 이외에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핵심 기술을 선점할 필요

25) 원유소비액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2010년 전 세계 원유소비부담은 3.9%로 추산. (IMF (2011). World Economic Outlook.;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Petronet.)